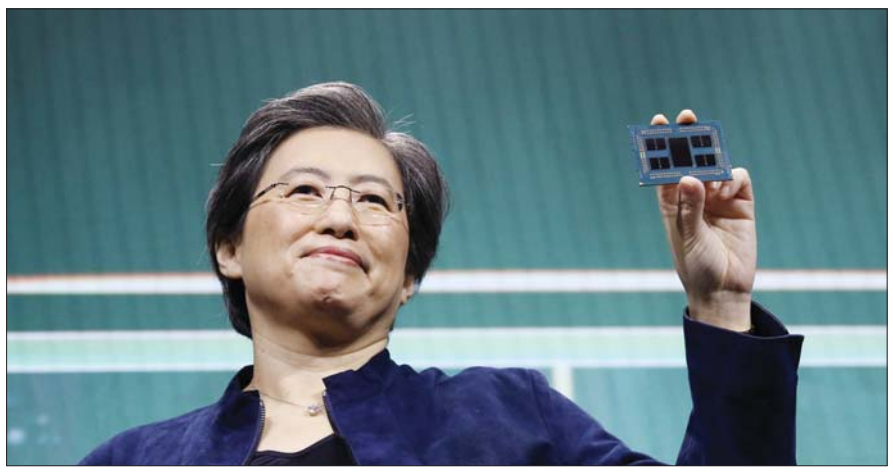
AMD 약진에 삼성전자 '好好'… 내년 매출 10% 성장 기대

x86 CPU 시장 경쟁 가속화
신제품 출시 등 기업협업 활발

반도체업계, 반사이익에 실적 기대


AMD를 이끄는 리사 수 CEO. /AMD

AMD가 약진하면서 반도체 업계도 대격변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호재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AMD는 최근 신형 CPU인 '라이젠 5000' 시리즈를 출시했다. ZEN3 아키텍처를 적용한 7나노 공정 적용 제품이다.

이번 라인업은 '역대급' 성능으로 주목받았다. AMD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던 시네벤치에서는 물론이고 스레드별 성능으로도 동급 인텔 CPU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799달러에 책정했다.

x86 CPU 시장도 인텔 독점 체제를 벗어날 기세다. 이미 AMD가 3분기 점유율 22.4%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선전하는 상황, 라이젠5000 시리즈가 최적화와 안정성만 증명한다면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버용 CPU인 에픽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최근 39조원이나 쏟아부으며 강행한 자일링스 인수도 인텔을 위협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꼽힌다. 자일링스는 무선통신과 자동차 등에 공급되는 반도체 FPGA를 만드는 회사로, 그 전에 인텔이 인수한 알테라를 앞선 1위 업체다. 인텔이 오랜 기간 노하우와 표준화를 주도할만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AMD가 CPU와 FPGA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리를 위협하는 모양새다.

AMD는 또 다른 날개인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추격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라데온 RX 6000시리즈를 엔비디아의 경쟁 모델인 지포스 30시리즈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지포스 30 시리즈도 전작 대비 크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열광시켰던 상황, AMD가 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독주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단지 가성비뿐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지포스에 다소 밀린다는 반응이지만, 엔비디아 전유물로 여겨졌던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게 됐으며, 전력 효율 부문에서도 엔비디아를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다. 최근까지도 인텔과 엔비디아가 각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하면서 신제품 출시 지연과 가격 상승을 주도해왔지만, AMD 활약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가격 안정화도 이뤄지는 분위기다.

당장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SK하이닉스에 매각하면서 지각변동은 시작됐다. 인텔은 CPU 등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낸드 사업부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CPU 출시 속도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낸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2위로 훌쩍 뛰어오르며 한국 점유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최근 인수한 ARM에 힘을 실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 모바일뿐 아니라 서버용 칩 솔루션 '네오버스'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가운데, 새로운 NPU를 출시하는 등 인공지능(AI)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에는 호재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파운드리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수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최근 업계 1위인 TSMC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삼성전자도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

인텔이 AMD를 추격하기 위해 자체 팹에서는 CPU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신 파운드리 수주를 늘리는 현상도 보인다. 인텔이 양산 기술적에서는 파운드리 업체보다 1~2단계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10나노 미만에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팹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AMD와의 협력관계도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엑시노스에 AMD GPU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진행 중이며, AMD 제품 생산 수주도 꾸준히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에 성공했다며, 내년에도 시장이 10% 가까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현지인처럼"… SKT, 외국어 통신서비스 확대

모바일 앱 영문화… 이용 이력 확인
전국 매장 30곳에서 외국어 상담

SK텔레콤홍보모델들이 홍대 ICT멀티플렉스 T팩토리에서 24시간 무인존 키오스크의 영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현지인처럼(Like a Local)'을 모토로 외국어 통신서비스를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우선 SK텔레콤은 이통사 가운데 최초로 회사 대표 모바일 앱에서 영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이용자는 모바일 T월드 앱에서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 T멤버십 할인, 요금 납부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5GX 요금제, 선납 서비스 '미리(MIRI)'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상세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매장 30여 곳에서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어상담이 가능한 T월드 매장은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에 있으며 매장별로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T월드 매장의 위치는 모바일 T월드 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매장에는 'WELCOME(환영합니다)' 문구가 적힌 인증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매장 방문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본인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를 걸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개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외국인임을 인지해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연결해 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

넥슨, 신임 사외이사에 케빈 메이어 내정

케빈 메이어 신임 사외이사 내정자

틱톡 CEO·바이트댄스 COO 등 역임

넥슨은 신임 사외이사에 전 틱톡 CEO인 케빈 메이어(사진)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케빈 메이어 신임 사외이사 내정자는 영화, 텔레비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성과를 남긴 인물이다. 월트디즈니의 최고 전략 책임자(CSO)로서 픽사, 마블 엔터테인먼트, 루카스필름, 폭스 등의 인수를 이끈 바 있다.

2018년에는 월트디즈니 DTCI 부문 대표를 역임하며 디즈니플러스, ESPN 플러스 등 신규 서비스 론칭과 글로벌 채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등 새로운 비전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글로벌 동영상 공유 앱 틱톡 CEO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COO를 역임하기도 했다.

케빈 메이어 신임 사외이사 내정자는 "넥슨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세계 기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며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하는 IP를 만들어내는 넥슨 만의 능력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현대로템, 美 포드 컨베이어 시스템 수주

763억 규모 운반설비 시공

현대로템이 지난 2016년 수주한 포드 미국공장 운반 설비

현대로템이 미국 포드의 글로벌 생산거점에 투입될 컨베이어 시스템을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미국 포드사로부터 3개국 공장에 들어갈 전체 763억원 규모의 운반 설비 시공 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주를 통해 현대로템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에 위치한 포드 공장에 2022년까지 운반 설비를 공급하게 된다.

운반 설비란 컨베이어를 중심으로 섀시, 엔진, 도어, 차체 등 각종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라인에 최적의 효율로 지속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공장의 운영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인 핵심 자동차 생산 물류 설비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포드사로부터 약 28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생산 설비 누적 수주를 달성했다. 지난 2008년 멕시코공장 운반 설비를 시작으로 2011년 인도공장 프레스, 2012년 인도공장 운반 설비, 2015년 태국공장 운반 설비, 2016년 미국공장 운반 설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따내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르노삼성車 "'동백상회'서 트위지 구경 하세요"

내년 10월까지 제품 전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전시된 르노 트위지.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부산역 광장에 위치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의 '동백상회'에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를 전시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은 부산시가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시종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상징하는 곳으로, 동백상회는 부산시가 온·오프라인 연계 쇼핑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한 부산 우수제품 전시관으로 11월 개관했다.

르노삼성은 부산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으로서 '동백상회'에 부산에서 생산돼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트위지를 선보인다. 국내 시장에 초소형 전기차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연 트위지는 당초 스페인 바야돌리드 르노 공장에서 생산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소재의 차체부품 제조업체인 동신모텍이 전 세계 판매 물량을 생산해 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